

# ‘중생 구제’ 대승적 가치 이타행으로 실천하다



김용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 7. 원효,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뛰어넘다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원효의 이름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는 불교사상이자 대중교화행의 선구자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전설과 요석공주와의 로맨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원효는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독창적 사상이었고 그의 사유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파격을 선보이며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중생과 함께 살아가는 실천적 종교인이었다.

원효(617~686)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현재의 경상북도 경산 지역인 입량군 불지촌의 밤골에서 태어났다. 귀족층인 6두품 출신으로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털옷을 두르고 태어났다고 하여 새털, 한자로는 서당으로 불렸다. 새벽을 뜻하는 원효(元曉)라는 이름은 자신이 직접 지은 것으로 해저 빛나는 부처의 가르침, 즉 불일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의 출가 전 행적이나 출가 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일생에서 가장 고뇌가 깊었을 이 시기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그가 환속을 한 후 주류 불교계와 거리를 둔 채 이웃사이더로 살았고 제자를 양성하거나 교단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교학 저술 외에 그의 삶에 대한 구체적 전승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원효의 일생을 알 수 있는 전기 자료로는 9세기 초에 신라에서 작성된 '서당화상비문', 10세기 말 중국에서 나온 <송고승전>의 '원효전'과 '의상전', 13세기 후반에 편찬된 <삼국유사>의 '원효불기' 등이 있다. '원효불기'는 원효와 같은 경산 출신인 일연이 그의 행장과 지역에 전해지던 향전 등을 인용하여 요석공주와의 인연 등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원효 삶의 단편을 복원한 내용이다. 연대가 가장 앞서는 서당화상비는 8세기 후반 원효의 후손 설중업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원효를 흠모하는 일본인 고관에게 확대받은 일을 계기로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후 비가 세워질 때 거사 모습의 원효상이 함께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출가자가 아닌 거사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원효에 대한 당시 신라인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비문의 내용은 <삼국유사> 등 후대의 자료에 인용되지 않아 그 실체를 알지 못하다가 20세기에 들어 몇 부분으로 조각난 비석의 일부가 발견되어 절반 정도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원효는 출가 후 중관, 유식 등 대승불교의 사상을 폭넓게 학습하였고 650년경 의상과 함께 당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고구려에서 잡혀서 돌아왔다. <송고승전> '의상전'에 의하면 원효는 661년에 다시 의상의 유학길에 동행하여 서해 바닷길로 당에 가려 했다. 하지만 비를 피해 유숙한 동굴이 다음날 해골이 있는 무덤인 것을 알고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이때 마음이 생기면 모든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동굴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은 오직 마음먹기 나름이고 마음 밖에 따로 존재가 있지 않으므로 굳이 밖에서 구할 것이 없다고 하고는 혼자서 돌아왔다. 이는 마음의 작용에 따라 법이 생기고 마음과 법이 둘이 아니라는 <대승기신론>의 요체를 간파한 것이다. 한편 원효의 깨달음을 전하는 이 일화는 후대에 원효가 해골 물을 마신 것으로 드라마틱하게 윤색되어 전승되기도 했다.

원효가 유학을 가고자 했던 이유는 인도에서 심어년간 원전을 학습하고 돌아온 현장에 의해 중국에 신유식이 도입되어 평지풍파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현장은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모델이 된 인물로 원효는 그가 제시한 신유식의 새로운 학설을 직접 접하고 배우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때는 당과 신라의 교류가 밀접하여 중국의 불서와 교학 이해의 내용이 바로 신라에 전해졌고, 원효는 굳이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신유식 등 최신 학설을 접하고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학을 포기한 후 원효의 행적은 학문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부딪혔고 대중교화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 특히 원효가 과부였던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중을 낳은 사건은 당시에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오늘날까지 연구에 회자되고 있다. 신라를 대표하는 학자인 설중은 고구려의 어순과 조사를 살리면서 한문을 신라식으로 표기하는 이두를 만든 이로 알려져 있다. 원효는 파계 후 환속하여 소성거사로 자칭하였고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 교화행을 펼쳤다.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해 노래하며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막힘이 없는 무애행을 행하였고 아미타 염불을 크게 유행시키는 등 중생 교화에 온몸을 내던졌다. 그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를 위한 대승계율의 <법망경>을 중시한 것도 승속의 구분을 뛰어넘는 행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효가 산 시대는 신분이나 지역적 차별, 전란의 참상과 민생고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던 때였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위안과 일상에서의 탈출이 필요하였고 종교적 구원은 더욱 절실히 다가왔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대중의 갈망을 간파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내세를 향한 갈망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또한 공주와의 인연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을 완수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신라왕실에 협력하여 시대적 과제 해결에 일조하였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서 나당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던 662년에 원효는 당의 소정방이 보낸 압호문 '서독화란'을 빨리 군대를 돌려라는 '속환'으로 해독하여 신라군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그 때문인지 '서당화상비문'에서도 그가 나라를 바로잡는 문무의 덕을 지녔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환속 후 신라 불교교단의 주류로부터 경원시되던 원효는 왕실의 지원으로 중앙 불교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앞서 온 나라의 고승 100명이 모이는 국가적 법회인 백고좌회가 열렸을 때 고단 핵심부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을 찬술할 기회를 얻으면서 화려하게 꺾

하였다. <송고승전>에 의하면 왕비의 병 치료를 위해 당에 가던 신라사신이 바다의 용왕에게 <금강삼매경>을 받아왔는데 그에 대한 해석을 원효에게 맡기라는 당부가 있었다. 원효는 소가 끄는 수레 위에서 논소 5권을 지었고 왕의 부탁으로 황룡사에서 이를 강설하려 하였는데 강연 직전에 누군가 이를 훔쳐갔다. 이에 3일 만에 <금강삼매경론> 3권을 다시 써서 설파하였는데, 원효는 "지난날 100개의 서까래를 고를 때 비록 까지 못했지만 지금 대들보 하나를 놓는 일은 나 혼자만 할 수 있구나."라고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원효는 중관, 유식, 법화, 화엄부터 열반, 정토, 계율, <기신론>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행되던 모든 불교 교학을 대부분 섭렵하였고 저술을 통해 독자적 사상

###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일심, 중생마음을 불법으로 바

주류불교계와 거리, 대중 속으로

실천중시 사상 제시, 불교개혁 유도

환속 후 '소성거사' 후에 '화쟁국사' 로

### 신라불교 자존심을 세우다

소위 '국내파' 지식인의 대표주자

당 유학길에서 '대승' 요체 깨달아

유학 포기, 신라서 '신유식' 모두 섭렵

중국·일본에 영향, 100여 저술 남겨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사상은 신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화엄학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법장은 원효의 <기신론> 이해를 참조하여 주석서를 썼다. 또 일심의 체득을 중시한 징관이나 종밀도 원효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았다. 일본에서도 8세기 나라시대의 남도 6중에서 원효의 학설과 사상에 의거하여 교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

원효는 평생 100여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현재는 그 일부인 14부 17권만 온전히 전하며 일부만 전하는 것도 10부 정도 된다. 다만 후대의 주석서에 인용된 내용이나 사본 단편 등을 통해 그의 사상의 전모를 구명 난 퍼즐처럼 등성등성 꿰맞춰 볼



경주 분황사에 모셔진 원효 스님 진영. 원효 스님은 당시 유행된 모든 교학을 섭렵해 독자적 사상체계를 구축했다.

수 있다. 원효 사상의 전개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반야공관과 일승 사상의 수용으로 교학승인 해공과 대안의 영향을 받아 공관을 수학하고 백제로 온 고구려 승려 보덕에게 <열반경>을 배워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일승의 가르침을 체득하였다. 제2단계는 유식사상으로 원효는 총 14종 9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유식 관련 저술을 남겼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신유식의 오성각별설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일승 사상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었다.

제3단계의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을 변함없는 본체로서의 진여문과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적 생멸문의 두 측면으로 나누고 모든 존재는 일심의 발현이라고 하였다. 원효는 일심은 만물의 본원으로 모든 법을 포섭하며 중생의 마음 그 자체라고 보았다. 그는 진여문을 공(空)과 일승, 생멸문을 유(有)와 삼승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양자의 논리적 통합을 지향하였다. 그의 <대승기신론법기>에서는 <기신론> 이어말로 "모든 논서 중의 으뜸이며 여러 논쟁을 극복할 수 있는 주안"이라고 하여 대승의 핵심사상인 일승을 실천 논서이자 불교이론을 종합한 사상이라고 극찬하였다. 한편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차별 없는 절대적 진리인 일심을 체득하는 '일미관행'의 수행법을 설하여 일심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원효는 일심을 통해 일승과 삼승, 공관과 유식, 차별과 무차별을 포괄하면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논리를 개진하고 실천한 것이다.

제4단계는 화쟁사상으로 원효는 <십문화쟁론>에서 공과 유, 일체개성과 오성각별, 아와 무아, 불변과 수연과 같은 여러 대립적 개념들이 실제로는 동일한 진리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설명한 것일 뿐이며 진리의 참모습을 알려면 어느 한쪽의 언어적 개념에 치우치거나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화쟁사상은 원효의 독특한 사유체계로 '서당화상비문'에서도 그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고려시대에도 의천에 의해 원효는 화쟁국사로 칭해졌다. <십문화쟁론>은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에까지 번져서 전해졌다고 하며 어렵게도 한국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가 20세기에 들어 일부 내용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원효는 <화엄경소>에서 차별적 현상 존재가 실제로는 원융무애하다는 화엄일승의 세계를 강조하였다. <화엄경소>에는 원효의 독자적 시각이 담긴 통합적 4교관설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승의 가르침이 근거에 따라 구분하는 삼승에 비해 차원이 높다고 보았다. 즉 삼승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단계를 삼승불교, 법공을 설하는 반야 계통의 중관사상과 유식의 <해심밀경> 등을 삼승통교, 대승보살계를 설한 <법망경> 등 실천적 성격의 경전과 <기신론>을 일승본교, 원융무애를 설한 <화엄경>과 같은 차별 없는 일승의 원만한 가르침을 일승만교로 구분하였다.

원효의 삶에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가 나뉘지 않았고 승과 속 모두가 깨달음 앞에 차별이 없고 서로 평등하다는 신념이 확고하였다. 그는 불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것이 일심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을 통찰력 있게 설명했고, 그러한 삶의 경지를 실천의 장으로 끌어올려 승화시켰다. 즉 자신만의 깨달음보다 중생 구제라는 대승적 가치를 위해 몸소 자타의 구분이 없는 이타행을 실천한 것이다. 당시 대중은 불교가 제시한 구원의 길에 열광했고 원효는 세간으로 되돌아와 대중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가 학자나 평범한 구도자의 길을 고수하지 않고 세속의 일파만파 속에 온몸을 내던진 것은 틀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여기에 원효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

##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 제7기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체제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실전문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